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

(목요일—오전 1부 집회)

메시지 1

하나님의 일, 곧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을 앎

성경: 마 16:18, 갈 4:19, 고후 3:8, 엡 3:16-21, 4:12, 16

- I. 우리는 하나님의 일, 곧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을 알아야 한다—엡 4:12.
- A. 우주 안에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은 원칙적으로 완전히 똑같다. 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동일한 목표를 위하는데, 그 목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원하고 단체적인 표현을 위해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갈 4:19, 계 21:10-11.
 - B. 역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갈망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 일이 있으며, 이 유일한 일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어, 사람을 하나님-사람, 곧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인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다—요 1:12-13, 3:15, 뱀후 1:4.
 - C. 하나님의 일의 본성은 매 시대마다 동일하다. 하나님의 일의 설계와 분량과 계획은 결코 바뀐 적이 없다. 즉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기를 갈망하신다—엡 3:16-21.
- II. 우주 안에서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유일한 일은, 그분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선민 안으로 넣는 일을 하여, 그분 자신을 그들과 하나 되게 하고 그들을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갈 1:15-16, 2:20, 4:19, 엡 3:17상.
- A.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내적 요소들이 되게 하는 것이다.
 - 1. 이러한 목적이 우주의 중심이며, 이러한 목적을 떠나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의미하다—계 4:11.
 - 2. 올바른 우선순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엡 2:10, 빌 2:13.
 - B. 성경의 지배하는 이상은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받고 구속된 사람들의 전 존재를 신성한 삼일성으로 적시시기 위해, 그들 안으로 그분 자신을 넣는 일을 하심으로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는 것이다—마 28:19, 고후 13:14, 엡 4:4-6, 계 1:4-5, 22:1-2상.
 - 1. 신성한 계시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시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과 모든 것이 되시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셨다는 것이다—창 1:26, 2:7, 롬 8:10하, 6, 11.
 - 2. 성경 전체는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구속된 사람들 안으로 그들의 누림과 음료와 생명의 원천과 빛으로 넣는 일을 하신다는 원칙에 따라 쓰였다—시 36:8-9.
 - a. 우리는 이러한 원칙으로 조성되어야 하며, 이 원칙이 우리에게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잠 29:18상.
 - b. 이것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내재적인 원칙이 되어, 우리가 말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모든 것을 지배해야 한다—행 26:19.

III. 우리의 일의 내재적인 요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는 것이다—마 16:18, 엡 3:17상, 4:4, 12, 16.

- A. 우리의 일의 목표는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마 16:18, 엡 2:22, 3:17상.
- B.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해야 한다—고후 13:14, 고전 3:9-10, 12.
- C. 우리가 낱고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고 건축하는 네 단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힘써 수행할 때, 우리의 일은 반드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 기초를 두어야 한다. 이분은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건축하고 계시고, 그들을 그분 안으로 건축하고 계신다—행 8:4, 엡 4:12, 고전 14:1, 3-4, 12, 31.
- D. 복음을 전하든, 믿는 이들을 먹이든, 교회들을 세우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든, 우리의 일의 모든 방면에서 그 내재적인 요소는 반드시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마 16:18, 24:45, 엡 3:17상, 4:12.
 - 1.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선민 안으로 넣는 일을 하기를 갈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바로 그때에, 우리의 일의 목표는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함으로써 삼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존재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엡 3:17상.
 - a. 주님의 회복 안의 우리의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다—마 16:18, 엡 2:21-22, 3:17상.
 - b. 우리가 경배하고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체현되시고 그 영으로 실재화되신,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다—골 2:9, 요 7:39, 갈 3:14.
 - c. 하나님은 한 집을 산출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그분의 구속된 사람들 안으로 건축하고 계시는데, 이 집은 바로 교회이자 그리스도의 몸이자 그 영으로 실재화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확대이다—요 14:2, 10, 16-17, 20, 23.
 - d. 이러한 계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건축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지배하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잠 29:18상, 행 26:19.
 - 2. 우리는 주님을 위해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재고해 보아야 하며,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이 넣어지셨는지를 질문해 보아야 한다—갈 4:19, 골 1:28.
 - 3. 우리는 한 가지 일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여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속사람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후 13:14, 고전 3:9-10, 12.
 - 4. 우리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으로 교회를 건축할 때, 사실상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건축하고 계신다. 즉 우리를 수단으로 사용하시어 그분 자신을 다른 이들 안으로 분배하시고 전달하고 계신다—행 9:15, 엡 3:8-9.

IV.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은 그 영의 사역이다—고후 3:8.

- A.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그 영계 속해 있다. 그러나 그들의 일은 다만 그 영계 속한 정도가 아니다. 즉 그들의 일이 ‘바로’ 그 영의 사역이다—고후 3:6, 8, 4:1.
- B.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이라고만 말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 우리는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이 바로 그 영이라고 말해야 한다—고후 3:8.
 - 1.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영이었다(요 6:63).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영이라고 말할 수 있다.
 - 2. 새 언약의 일, 곧 사역은 그 영의 사역이지, 다만 영적인 사역 정도가 아니다—고후 3:8.
 - 3. 우리가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하는 말들은 영일 것이고, 우리가 하는 일 또한 영일 것이다—행 2:4, 엡 5:18.

V. 주님의 회복 안에는 유일한 한 가지 일, 곧 한 몸의 일만이 있다—엡 4:12.

- A. 주님의 회복 안의 유일한 일은 그분의 경륜의 일, 곧 그리스도의 몸의 일이다—고전 15:58, 16:10.
 - 1. 우리는 모두 반드시 몸을 보아야 하고 몸의 일을 해야 한다—엡 1:22-23, 2:16, 4:4, 15-16.
 - 2. 몸에 대한 이상은 반드시 우리의 지배하는 이상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이상 아래서 주님의 회복의 일을 해야 한다—잠 29:18상.
 - 3. 우리가 몸의 하나를 본다면 우리는 또한 일의 하나를 볼 것이고, 개인주의적인 일로부터 구출되어 몸의 일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엡 4:4, 12, 고전 12:12-13, 15:58, 16:10.
- B. 모든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한 가지 일을 해야 한다—롬 12:4-5, 고전 12:12-13, 24-27, 엡 4:12, 16.
 - 1.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우리 개인의 일이 아니라, 수세대에 걸친 하나님의 경륜,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딤후 1:4, 엡 3:9, 4:12.
 - 2. 우리가 우리의 지방에서 무슨 일을 하든 혹은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하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한다—엡 4:16.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하나님의 일의 외면적인 나타남과 내재적인 원칙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매 시대마다 하고 계신다.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매 시대마다 다른 것 같으나, 사실상 내재적인 원칙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하다. 구약과 신약은 완전히 다른 두 시대이며, 하나님께서 두 시대에서 하신 일도 다르다. 그러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다. 이것은 내가 어제 입은 옷과 오늘 입은 옷이 다르지만 옷을 입은 나는 동일한 사람인 것과 같다. 매 시대 안에 있는 하나님은 완전히 동일하신 분이요, 그분께서 매 시대마다 하시고 있는 일은 동일한 목표를 위한 것이며, 단지 외면적으로 나타난 방식에 있어서 다소 다를 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걸을 때 외면적인 방식을 너무 중시하지 말고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 자신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한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더하여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사람을 통해 일하신 것의 외면적인 나타남이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일들은 완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며 사람이 정할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마르틴 루터(Martin Luter)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후로부터 지금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거쳐 가셨다. 그러나 기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거쳐 가시고 그들 위에 일하셨지만, 그들의 드러난 외면적인 상황은 모두 달랐다는 것이다. 뮐러(George Mueller)에게서는 이러한 모양이었고, 무디(D. L. Moody)에게서는 저런 모양이었으며, 스펄전(C. H. Spurgeon)에게서는 또 다른 모양이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안에 일하신 것의 외면적인 나타남이 달랐을 뿐만 아니라,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의 외면적인 나타남 또한 달랐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해야만 하나님의 갈망을 만질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중국에서는 쑹상지에(宋尙節)가 주로 복음을 위해 주님께 사용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하신 일은 매우 특별한 모양으로 나타났다. 어떤 사람은 그의 일의 효과를 보고 그렇게 모방하고 따라서 해 보았지만 통하지 않았다. 우리 각 사람은 각자 고유의 모습을 갖고 있으나, 자신에게서 출생한 아이들이 똑같은 모습을 가질 것이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이의 생김새가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에게서 출생한 아이는 동상이나 석고상이나 밀랍으로 만든 상(像)이 아니다. 다만 동상과 석고상과 밀랍으로 만든 상만이 같을 수 있다. 당신에게서 출생한 아이는 생명이 있고 살아 있다.

여러 시대에 걸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의 외면적인 나타남과 모양은 시대에 따라 완전히 다르다. 그러나 내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칙과 길과 내용과 목적은 절대적으로 같을 뿐만 아니라 오직 하나뿐이다. 하나님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셨고, 사도들 안에서, 영적인 성도들 안에서 일하셨으며, 심지어 우리들 안에서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목표와 방향은 절대적으로 같다. 이것은 우리가 중국에서 중국식 의복을 입고, 일본에 가서는 기모노를 입으며, 유럽에 가서는 양복을 입고, 또한 어떤 지방에 가서 어떤 옷을 입을지라도, 그 옷을 입는 사람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타이베이에 있다가 일본에 갈지라도 여전히 그 사람은 동일하며, 유럽에 갈지라도 그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옅과 다윗과 요한과 마르틴 루터와 뮐러 안에서 하신 일이 외적으로는 달랐지만 내적으로는 동일했다. 역대로 하나님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바꾸지 않으셨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혹은 중국이든 외국이든, 혹은 현재든 장래든 하나님의 일의 외면적인 나타남은 아마도 각양각색일 것이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오직 하나의 내용만을 갖고 있다. 성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러한 계시를 얻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면적인 형식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모방하기를 원하지 않고, 또한 교회가 다른 교회를 모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은 타이베이에 있는 교회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타이중(臺中)에 있는 교회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가오슝(高雄)에 있는 교회에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외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내면적으로 볼 때 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오슝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타이베이에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타이베이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동남아시아에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역대로 하신 유일한 일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임

대학생들이 청년의 시기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의 상황은 3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풍성해졌다. 30년 전에는 설령 우리가 수중에 있는 모든 돈을 영적인 서적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지라도, 그 서적에서 오늘날과 같은 빛을 찾아내기가 힘들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진리의 빛을 여러분에게 모두 전해 주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역대로 하고자 하신 일이 단지 하나밖에 없었음을 분명하게 보아야 한다. 역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갈망하시는 유일한 일은 바로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어, 사람을 하나님-사람, 곧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인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사람은 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의 요소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 예를 들면, 여기에 물이 한 잔 있는데 차의 성분을 더하면 차물이 된다. 우리는 원래 '사람'에 불과하였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더해지셨다.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더해지셨을 뿐 아니라 더욱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연합되셨는데, 이러한 연합은 우리를 하나님-사람이 되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신격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역대로 행하신 일은 바로 이렇게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었다. 그분께서 욥에게 행하신 일이 이와 같았고,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구약의 모든 신언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일하셨다. 하나님은 역대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른 일을 하시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고 다니엘의 성격을 읽어낼 수 없다면, 다니엘서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만일 우리가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성격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이 쓴 책들의 내용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구약의 신언자들이 쓴 신언서들은 위인전기에 비유할 수 있다. 우리가 만일 그들의 성격을 읽어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셔서 산출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없고, 또한 그 부분의 말씀을 근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비밀이다. 그러므로 신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말해 줄 뿐 아니라 구약도 동일한 원칙을 계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역대로 행하신 한 가지 일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이다.

영적인 일은 외형적으로 모방할 수 없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실 때, 우리가 갖게 되는 표현과 나타남은 서로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밀러 안에 넣는 일을 하셨을 때, 밀러에게서 어떠한 표현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고아원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스펀전에게 넣는 일을 하셨을 때, 스펀전에게서 능력에 찬 복음 전파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일이 각 사람에게서 표현되는 것은 각양각색이다. 한 분의 동일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만, 이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은 모방할 수 없고 오직 내면적인 원칙만을 따를 수 있을 뿐이다. 모든 외형적인 모방은 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전기(傳記)와 역사를 읽을 때, 역사적인 인물들의 외면적인 나타남을 찾아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들을 입고 걸어가신 길과 그들을 통해 행하신 일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근대에 행하신 일이 그분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라고 말할 때, 이러한 말에 대해 우리는 그다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체로 하나님께서 근대에 걸으신 길을 복음의 길로 여긴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온 천하로 다니며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것이 틀렸다고 감히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외면적으로 나타난 것일 뿐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실지는 사람에게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임하시어 욥을 만지시자 그에게서 어떤 표현과 행동이 있게 되었고, 또한 어떤 결과가 산출되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하시는 일은 서로 다른 결과를 산출한다. 우리는 청년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시기로 정하셨다고 말해 줄 수 없다. 우리가 만약 그러한 것에 대해 말해 준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의 원칙을 모르고 있음을 보여 줄 뿐이다. 오 년이 지난 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어떤 모양으로 그분의 일을 나타내실지 결코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또한 과거에 있었던 성도들의 체험에 따르면, 우리는 역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일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으시신 후 우리에게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실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사람 안으로 넣는 일을 하기를 원하심

이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만을 주의하는 사람은 분명 실패하고 실수를 범하였다. 신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는 다만 열심을 내고 주님을 위해 일하고 영성과 능력을 얻는 것 등만을 생각할 것이다.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 안에 이러한 타고난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넣는 일을 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다. 이것은 사람 안에 빛이 없을 뿐 아니라 계시도 없기 때문이다. 설령 이 일이 우리 모든 사람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응이 전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씨를 뿌려도 심기지 않고 먹으로 씨도 씨

지지 않는 대리석과 같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유일한 일에 관한 관념이 조금도 없다.

설령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나 교회 안에서 많은 말씀을 들은 형제자매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아야 한다. 오늘날 설령 당신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분 자신을 당신과 내 안으로 넣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매 시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본성은 모두 똑같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청사진과 분량과 계획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각 사람에게서 나타난 외면적인 모양은 모두 달랐다. 만일 당신과 내가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면, 오 년이 지난 뒤 이 땅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는 하나님만 아신다.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11-17쪽)*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조성으로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함

사람의 사진이 그 사람의 생명과 본성을 갖고 있지 않듯이, 하나님의 마음의 사진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없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 합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었지만, 그에게는 유기적으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없었다. 다윗에게 필요했던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인성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조성으로 우리 안으로 넣는 일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 결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다. 오늘날 우리는 외적으로 다윗만큼 높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과 조성이 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셨으며, 이 사람이 신성한 존재로 인정될 수 있도록 어떤 과정들을 거치셨다. 부활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로 인정되셨다. 부활 안에서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생명 주시는 영이 되시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내적 조성이 되도록 우리 존재 안으로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나누어 주고 분배하고 계시며, 이로써 우리를 그분과 똑같은 하나님-사람으로 만드신다.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며, 우리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상호 거처를 얻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기를 갈망하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위와 생활과 존재를 가지려고 애쓰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 존재 안으로 건축하기를 갈망하신다는 관념이 없다. 그분께서 우리 안으로 건축하고 계시는 것은 그분의 거처가 될 것이고, 이 거처는 또한 우리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상호 거처가 된다. 새 예루살렘은 이 상호 거처이다. 한편으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다(계 21:3, 22).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은 요한복음 15장 4절의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라는 주님의 짧은 말씀의 성취일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7절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 안에 이 상호 거처를 산출하시기 위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는 일을 하고 계심을 말해 준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시면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한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성취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건축하심으로,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백향목 집을 지어 드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다윗 안으로 건축하고자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 안으로 건축하시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며 또

한 다윗의 집일 것이다. 이 상호 거처는 또한 요한복음 14장 23절에 계시되어 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 이 거처는 삼일 하나님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또한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건축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처이며 또한 우리의 거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처를 얻으시는 것이 우리의 행함이나 일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건축하심에 의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 안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에서부터 우리의 혼 전체를 점유하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확산되심으로써 교회를 건축하신다(마 16:18). 이 교회는 그분의 거처이자 우리의 거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며, 우리의 부담은 이 한 가지를 강조하는 것이다.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이 되심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건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과 본성과 본질이 되도록 우리 안으로 건축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재적인 조성이 되실 것이다. 우리는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될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씨와 하나님의 아들-상호 거처를 위해 하나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신성하고도 인간적인 어떤 것-일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이 상호 거처의 최종 완결이며, 우리는 모두 그곳에 있을 것이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25장, 195-198쪽)*

건축하시는 하나님과 건축되신 하나님을 공급함

오늘날 회복 안에서 우리의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 죄인들을 구원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며, 그들을 온전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공급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급하는 하나님은 단지 건축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다. 그분은 또한 건축되신 하나님이시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공급하는 데에 실패한다면, 우리의 일은 나무와 풀과 짚일 것이다(고전 3:12).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재고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아마 여러분은 한 지역을 개척했거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묻겠다.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이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인도한 사람들 안으로 놓여지셨는가? 우리가 진실하고 순수하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낮추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들 안으로 놓여지신 삼일 하나님이 그다지 많지 않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일을 실행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여,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그들의 속사람 안으로 건축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하든, 믿는 이들을 먹이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든, 우리의 일의 모든 방면에서 그 내재적인 요소는 반드시 건축하시고 건축되신 하나님을 다른 이들 안으로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구속된 백성 안으로 건축하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시고, 완결되신 영으로 실재화되신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하고, 전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한다. 오늘날 하나님은 그분의 구속된 백성 안으로 그분 자신을 건축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요소이신 그분 자신과 구속되고 높여진 사람들의 인성에서 나온 어떤 것으로 그분의 집을 산출하시기 위해서이다. 이 집은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집은 그 영으로 실재화되신 삼일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의 확장 과 확대이다. 우리가 낳고 양육하고 온전하게 하고 건축하는 네 단계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힘써 수행할 때, 우리의 일은 반드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께 기초를 두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구속하신 사람들 안으로 건축하고 계신다. *(사무엘상하 라이프 스타디, 30장, 232-233쪽)*